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정 영 금(가톨릭대 교수) · 송 혜 림(울산대 교수) · 박 정 윤(중앙대 교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사업들이 실시되어 왔고,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가정의 건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센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과자료가 도출되지 않음으로써 센터가 가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건강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 연구들이 시작되고는 있으나 그 연구의 수가 극히 적으며 아직 완전한 연구조차 없는 일이다.

현재 센터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가정건강성 척도는 센터 이용자들에게 바로 적용하여 이들의 건강성도와 향상정도를 파악하며 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을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목표와 내용을 가진 가정건강성 척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가정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여 센터 이용자들에게 활용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가정건강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후, 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정건강성의 목적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제시된 사업목표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건강가정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텔레이방법을 통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건강성 지표는 기초적인 생활, 균형성, 자원활용성, 친밀성, 적응성, 가족가치, 지역사회 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이 건강성 지표를 근거로 가정건강성 척도를 구성한 후 센터 이용자에게 대한 설문은 토대로 가정건강성 평가도구를 확정하였다. 설문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10개 센터에서 20부씩 총 200부를 조사하였다. 평가도구는 가족관계지표, 자원관리지표, 외부관계지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정건강성에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문항 외에 기초적인 생활을 점검하는 문항을 포함시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 이후에 건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건강성 평가도구는 개별가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정을 개선하고 상담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점수계산에서 더 나아가 가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가정건강성의 세 지표인 가족관계지표(R), 자원관리지표(M), 외부관계지표(E)를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높고 낮음을 기초로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한 후 세 지표를 조합한 총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과 강점, 보완점, 실천전략을 제시해줌으로써 가정이 건강한가를 평가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